

영주권자와 귀화자의 생활 만족감: 계층 이동감과 상대적 소속감을 중심으로

권 오 정*
(한양대학교)

김 석 호
(서울대학교)

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체류 이주민 중 영주권자와 귀화자들의 이주라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주관적 인식들이 생활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계층이동감과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이 현재 생활 만족감에 독립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이주맥락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인 성별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 통계적 분석을 통해 논의하였다. “2013 영주권자·귀화자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총 1,054명의 이주자들의 생활 만족감을 설명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계층이동감이 하향에서 상향으로 이동할수록 남녀 이주자 모두의 생활 만족감을 높이는 독립적인 효과를 가졌다. 또한 계층 하향이동감은 선진국 출신 이주여성들의 생활 만족감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은 여성 이주자의 생활 만족감에만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고, 그 중에서도 후진국 출신 이주 여성들의 생활 만족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이주 집단 간의 생활 만족감이 형성되는 상이한 맥락들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용어: 생활 만족감, 계층 이동감, 상대적 소속감, 출신국적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힌다(NRF-2014S1A3A2043476).

* 교신저자: 권오정, 한양대학교(ziankwon@gmail.com)

■ 투고일: 2016.3.13 ■ 수정일: 2016.6.14 ■ 게재확정일: 2016.7.25

I. 서론

경제발전과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한국은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외국인의 삶의 터전으로서 더욱 복잡하고 다원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수용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정주자격을 부여하고 누구를 배제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느 국가나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이주자들의 정주를 원한다. 귀화자나 영주권자와 같이 한국 사회 안으로 법적으로 포용된 정주자들은 사회통합정책의 최우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현재 이주환경에 대해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 이들의 생활 만족감을 설명하는 기제를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이주배경과 자원을 가진 이주 집단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적응자원들은 무엇인지를 구체화시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 만족감에 대한 연구는 이주자들의 성공적인 통합과 정착에 필요한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은 무엇인 지, 그리고 제도적인 걸림돌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이주정책과 통합정책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귀화자들과 영주권자들의 생활 만족감을 설명하는 개인적 요인들이 무엇인 지 파악하면서 특별히 ‘이주’라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이주자들의 주관적 인식이 가지는 효과에 주목하려 한다.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사회를 연결하는 이주의 경험은 이주자의 경제 사회적인 편입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적응을 요구한다. 이에, 최근의 이주 연구들은 객관적인 경제 사회적 요인들 뿐 아니라 정체성이나 소속감, 또는 계층이동에 관한 이주자들의 인식이 그들의 적응과 건강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나 적응 자원들이 이주자들의 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이주자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주자의 주관적 인식에 주목했던 이론적 논의들에서 출발한다. 우선, 생활 만족감이 대변하는 이주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조건들과 함께 주관적 인식들의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성별과 국적에 따른 이주의 맥락에 따라 중요성을 달리할 것이라는 가정에 분석 결과를 논의할 것이다. 이주자들의 주관적인 인식들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이제껏 한국의 이주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주 전의 생활환경이나 이주 동기, 이주 후의 초국가적(transnational) 의식이나 생활방식, 더 나아가 앞으로의 정주계획(settlement plans)등 이주자들의 이주 맥락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통합의 단일한 대상으로서 이주자들을 바라보는 기존의 접근방식과 구분되는 대안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바탕으로, 이주자의 생활 만족감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제2장) 이 연구의 자료와 방법론을 설명한 후(제3장) 분석 결과를 기술하고(제4장) 그 함의와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제5장).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생활 만족감

생활 만족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70년대 서구 선진국에서 시작된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 Movement)을 통해 발전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은 개인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조건들을 확인하고 특정 집단에 나타나는 결핍을 파악하여 정책개입을 모색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지 평가하려는 실용적인 욕구에 의한 것이었다(Veenhoven, 1996a, pp.11-14). 삶의 질을 담보하는 외부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의 중요성이 인지되면서 “생활 만족감”은 이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개념적으로, 생활 만족감은 일이나 과정과 같은 서로 다른 생활 영역들을 포괄하여 자신의 삶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Diener, 1984). 또한 스트레스나 행복감과 같은 감정적 상태와 구별되는 삶의 지속적 상태와 의미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이기도 하다(Diener, Kahneman, Tov & Arora, 2010, pp.13-14). 가장 보편적으로 설문조사의 단일질문을 통한 측정이 사용되고 있고 그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Sachs,

2013), 또한 문화에 따라 나타나는 생활 만족감에 대한 정의와 응답성향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만족감의 간단한 측정도구는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의 생활 만족감 비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Kahneman & Krueger, 2006, pp.6-7).

개인의 생활 만족감은 한 사회의 전반적인 질(quality of society)의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사회적 위치나 능력, 성격적 기질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소득의 분배와 남녀 간의 관계가 평등할수록 전반적으로 높은 생활 만족감을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의 평균 수준의 생활 만족감 혹은 행복감은 그 국가의 소득 수준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연관성은 조사 대상과 시기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Frey & Stutzer, 2002, pp.416-419; Stevenson & Wolfers, 2008). 물질적 풍요로움과 정신건강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가 일정 소득 수준이 만족된 후에는 현저히 약해진다는 소득의 한계효용에 관한 주장도 제기되었지만(Clark, Frijters & Shields, 2008, pp.56-57), 경제적 조건은 여전히 국가 간 혹은 개인 간의 삶의 질과 생활 만족감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이러한 효과는 저개발국이나 선진국, 혹은 저소득이나 고소득의 집단 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Stevenson & Wolfers, 2013, pp.603). 직업과 관련한 조건들은 더욱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전문직이나 관리자 역할의 직업군이 더 높은 생활 만족감을 가지며, 임금노동에 종사하거나 자발적인 조직참여, 친밀한 관계의 유무등도 생활 만족감을 높여준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사회성(social skills), 외향적 성향등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다. 또한 생활 만족감에 끼치는 나이나 성별, 그리고 교육의 영향은 후진국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Myers, 1992; Veenhoven, 1996b, p.18).

2. 이주자들의 생활 만족감의 결정요인들

이주자의 생활 만족감은 성공적인 적응 또는 통합의 지표로서 연구되어 왔다(Amit, 2010). 한 예로, 생활 만족감이 높은 이주자일수록 통합되기 쉬우며 따라서 이주자의 국적을 취득할 확률이 높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다(Massey & Redstone, 2006). 일반인과 다른 이주자 특유의 생활 만족감을 결정짓는 요인들과 이민자 집단 간의 생활 만족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조건들은 이주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다(Bartram, 2011; Safi,

2010). ‘이주’라는 경험은 본국에 기반한 인적 사회적 자원과의 단절, 민족적 차별의 문제, 새로운 언어습득의 문제, 가치관과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등 “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를 유발한다(Berry, 2006). 현재 이주연구에서는 적응과정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요인들(stressors)과 이를 완화시키는 대처자원들(coping resource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주자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함으로써 이들의 이주생활의 적응상태를 평가했으며 낮은 현지 언어능력, 가치관의 갈등과 외로움 등에서 오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적응의 실패와 낮은 수준의 동화를 드러내는 직접적 지표로 이용되기도 했다(Sodowsky & Lai, 1997). 이주자의 노동력이나 기술, 그리고 교육 등의 인적자원은 이주국에서의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지만 그들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 언어, 종교 그리고 가치관은 갈등과 차별, 고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래 “적응”(acculturation)의 개념은 188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원주민(aboriginal) 혹은 소수 이주자의 문화에 대한 경멸적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이들 “외부자”들은 무지하고 비위생적이며 범죄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앵글로색슨 문화에 동화(assimilation)되는 과정을 통해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시각과 연결되어 있다(Rudmin, 2009, p.107). 독일 이주민들에 관한 한 연구는 독일에 대한 심리적 친밀성과 독일어 능력으로 측정된 이주자의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가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나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기질적 특성들(예: 낙관주의), 혹은 이주지역의 문화나 제도의 특성 등에 의해 매개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 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ngelini et al., 2015, p.841).

한편, 민족적 소수자들(ethnic minorities)의 건강이 위에서 언급된 생활의 변화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내국인에 비해 열악하며, 따라서 적응이 심화될수록 건강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지배적 견해들에 반하는 여러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있어 왔다.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수준의 적응 모두 연구대상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건강 효과를 보였으며(Roysircar & Maestas, 2002),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은 부분적으로 ‘적응’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화와 측정도구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이주자의 정착지 언어의 숙련도, 체류기간이나 거주 자격, 사회 관계망, 그리고 생활방식이나 습관, 종교활동, 특정 가치관이나 소속감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그 자체로서 이주자 적응정도의 지표로 사용되어 오면서 개념이 방만하게 남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Salant & Lauderdale, 2003, pp.86-87).

한국 이주자의 생활 만족감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 연구의 주요 대상이었던 결혼 이주 여성들에 집중되어 왔다. 이들의 생활 만족감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며 개별 요소들이 가지는 영향이나 방향이 연구마다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감이 낮아지고, 농촌 지역 거주일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감이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김진희, 박옥임, 2008), 한국어 능력이 높고 경제생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또한 사회 연결망이 클수록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김한성, 이유신, 2013). 지역사회 특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같은 민족 사람이 지역사회에 많이 거주할수록 이주자의 고립 유형의 적응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생활 만족도를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김두섭, 이지원, 2015).

3. 이주자의 주관적 인식과 생활 만족감

개인에 따라 혹은 집단에 따라서 같은 삶의 조건들에 대해 다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한다는 주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생활 만족감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이다. '다층과리이론'(Multiple-Discrepancy Theory)은 기대수준과 현실사이의 과리(discrepancy)를 생활 만족감의 주관성을 이해하는 객관적인 분석틀로서 제시하고 있다(Michalos, 1985).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what one's life should be)라는 기대, 구체적으로 과거에 소유했던 것, 가지기 원했던 것,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소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현실과의 과리감이 커지고 삶의 만족감은 낮아지게 된다. 이주 후의 주관적 인식의 중요성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강조되고 있다(Lester, 2005).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은 행복과 생활 만족감으로 측정되는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 '경제 이주자의 경우 학력이나 직업, 소득과 같은 객관적 요소들이 항상 성공적인 적응과 더 나은 건강상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경제적 이주를 통해서 본국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높아진 소득수준에서 오는 만족감은 내국인(natives)과의 비교, 혹은 본국 가족과의 이별 등 삶의 다른 부분에서 수반되는 희생으로 감소될 수 있다(Dreby, 2010; Bartram, 2011, p.72). 특히 높은 교육수준과 직업적 지위로 본국에서 중산층으로서 생활해왔던 이주자의 경우, 새롭게 정착한 이주지에서 그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더 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Vohra & Adair, 2000).

이주자들은 많은 경우, 이주 후에 직업적 하락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의 높은 학력은 오히려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Kuo, 1984; Kim & Grant, 1997). 또한, 높은 소득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생활의 만족감을 높이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적 소득수준이 아닌 상대적 소득수준이며 이주자가 자신의 소득을 비교하는 준거집단의 설정은 한층 복잡한 과정이다(Obucina, 2013, pp.1112-1113).

이주자의 생활 만족감에 중요한 주관적 인식으로서 이주를 전후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대한 이주자의 평가가 연구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주자들의 사회계층 이동감(perceived social mobility)을 본국과 이주국에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정의하였다(Alcantara, 2014, pp.97-100).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본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위로서 가구소득이나, 교육, 직업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과 강한 연관을 가질 뿐 아니라, 이들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건강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Adler et al., 2008, p.1035). 주관적 사회적 지위(subjective social status) 측정은 객관적 지표들의 국가간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의 문제와 객관적으로 포착하기 힘든 미묘한 사회적 지위의 판단, 그리고 응답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처지나 미래의 기회에 대한 평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Nickett & Burgard, 2009, p.798). 실증적 연구들에 따르면, 상향 혹은 하향의 계층이동감은 어느 정도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있는 집단의 정신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즉, 사회경제적 하위층의 이주자 집단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다소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이주자 집단에서는 주관적 계층이동감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Ostrove, Adler, Kuppermann & Washington, 2000). 예를 들어, 미국에 정착한 쿠바출신 이주자들은 다른 남미출신 이주자들에 비해 높은 학력과 소득을 가지는 데, 이들 집단에서 계층 이동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멕시코나 푸에르토리칸 등의 다른 남미출신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Molina, Alegria & Mahalingam, 2012).

이주자의 생활 만족감에 중요한 또 다른 주관적 인식으로 이주국에 대한 소속감이 논의되어 왔다. 이주자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본국에 속한 민족적 정체성과 달리 이주국에 대한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본국에 대해 가지는 민족적 정체성과 이주국에 대해 가지는 정체성 사이에는 정적이거나 부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져 왔다(Phinney, Horenczyk,

Liebkind & Vedder, 2001). 무엇보다 이주국의 사회 문화적 환경은 두 가지 정체성의 관계를 결정짓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높은 다문화 인프라를 갖춘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정착한 멕시코 출신 이주자들은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국가적 소속감을 동시에 가짐으로써 “Mexican American”의 혼합적 정체성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조적인 예로 네덜란드의 안틸레스(Antilles) 출신 이주자들의 경우, 그들의 법적으로 보장된 시민자격에도 불구하고 사회나 정부로부터 이등 시민으로의 낙인과 차별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강한 민족적 정체성은 약한 국가 사회적 정체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Phinney et al., 2001, p.498). 일반적으로, 강한 민족 정체성은 이주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주변인 지위로 낮아진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심리적 보호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Liebkind, 1996; Rogers, 2001). 즉 강한 민족 정체성은 자신은 “다른 곳”에 속해있다고 인식하며 자신의 존재를 이주국으로부터 상징적으로 분리해내고 한층 더 민족의 관습이나 언어적 전통을 고수하는 자기 방어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Portes, 1999, p.465). 반면, 이러한 본국 소속감과 민족 정체성은 이주국에서의 차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재의 생활에 대한 불만족과 좌절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Waters, 1994; Phinney & Onwughalu, 1996). 또한, 같은 민족끼리의 연결망과 공동체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주거와 사회관계에서 배제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이주국에서의 생활의 낮은 만족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Gokdemir & Dumludag, 2011).

한편, 이주자의 국가적 정체성(host national identification)은 이주자의 동화나 적응 정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이해되어왔다. 위의 캘리포니아의 멕시코인이나 네덜란드에 정착한 안틸레스인들의 예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주자의 높은 국가적 정체성은 그들이 경험한 이주지의 문화나 제도적 환경이 적대적이거나 억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주자들의 국가적 정체성은 많은 경우 이주국의 주요 문화적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며(Kofman, 2005), 따라서 본국과 이주국에서의 문화적 차이가 큰 경우 이주국에서 겪는 갈등이 커져 국가적 정체성의 형성은 매우 어렵게 된다(Phinney, Horenczyk, Liebkind & Vedder, 2001). 또한 이주국에의 소속감과 정체성은 내국인과의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의 강한 연결망과 유대에 의해 강해질 수 있다(Vroome & Martinovic, 2014). 결과적으로, 강한 이주국에의 국가적 정체성과 연관된 요소들은 모두 이주자의 생활 만족감과 정적인 연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적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민족적 정체성과 더불어 이주국에 대해서도 강한 정체성을 가진 안정적인 ‘이중문화정체성(bicultural identity)’이 이주자의 적응과 건강에 가장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한다(LaFromboise, Coleman & Gerton, 1993).

4. 출신국의 경제적 배경과 성별

이주 후에 형성된 이주자들의 주관적인 인식들과 적응조건들이 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은 출신국가에 따른 이주이전의 생활환경과 분리되어 이야기할 수 없다.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서로 다른 이주 집단이나 이주 맥락에 따라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의 위험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Nicklett & Burgard 2009, p.793). 이스라엘에 정착한 유대인 이주자들의 출신 국적별 비교연구들은 출신지 배경이 가지는 다층적인 효과들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주동기에는 명확한 출신국가 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구 소비에트 연방(Former Soviet Union) 출신들이 주로 경제적 혹은 정치적 동기의 이주를 했다면 서구자본주의 국가 출신들의 이주에는 강한 종교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Amit, 2010, p.519). 또한 이스라엘에서 구 소비에트연방 출신 이주자들은 같은 수준의 교육과 직업에도 불구하고 서구출신 이주자들에 비해 더 많은 직업적 하락을 경험했다(Raijman & Semyonov, 1998; Eckstein & Weiss, 2002). 이는 서구출신 이주자들의 교육과 직업경력 그리고 문화적 자원들이 이스라엘에서 더욱 호환가능(transferable)했기 때문이다. 또한, 구 소비에트연방 출신 이주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정체성보다 더 강한 러시아 정체성과 유대인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Rafael, 1994). 이러한 차이들은 구 소비에트연방 출신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 만족감으로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이주할 경우에 절대적인 소득의 향상이 있더라도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고소득 국가에서 저소득 국가로 이동할 경우, 이주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 기술, 문화적 자원을 통해 더 빠른 적응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생활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Semyonov & Lerenthal, 1991; Bartram, 2015). 결론적으로, 출신국 배경에 따른 이주동기와 이주 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에 따라 생활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Massey & Redstone, 2006).

한편, 이주자들의 적응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서 보이는 남녀 간 차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부족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기제와 대처 자원들(coping resources)은 다르다고 알려져 있으며(Kessler & McLeod, 1984, pp.627-630), 이주자 집단에서도 이러한 남녀 차이는 유효할 것이다. 여성 이주자는 가정과 결혼 생활과 관계된 스트레스가 높은 동시에 이러한 사적 영역에서 대처자원들을 얻는 반면, 남성 이주자는 가정 외부에 존재하는 직업과 경제적 활동과 관련되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가정에서의 지지가 가지는 대처자원으로서의 역할은 여성에 비해 약한 편이다(Aranda, Castaneda, Lee & Sobel, 2001, pp.39-40). 한편, 여성주의적 연구들은 여성의 이주 경험이 남성의 그것과 비교해서 이중의 위험을 지닌다고 강조해왔다. 이주 여성들은 가사와 양육의 주된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저임금과 열악한 육체노동의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Pessar, 1995; Simon, 2001).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여성 이주자들에게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는 여성이 가족문제, 건강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더 많은 위험인자들(risk factors)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강한 이주동기와 직업의 적합성 등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다(Ristner, Ponizovsky, Nechamkin & Modai, 2001, p.151). 한편, 여성 특유의 대처 자원을 강조한 연구들은 남성 이주자가 경제적 혹은 직업적 적응에 더 유리하지만 여성 이주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친밀한 사회 연결망을 맺음으로써 사회적 지원을 획득하며(Liebler & Sandefur, 2002, pp.388-389), 남성이 이주에서 채워지지 못한 기대감과 직업적 실패로 좌절하는 반면, 여성은 이주경험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시각과 기대의 절충으로 생활 만족감을 유지한다고 주장한다(Remennick, 2005, p.861).

이주 여성들의 출신국 배경효과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한국에 정착한 이주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 베트남, 중국, 필리핀 여성들의 국적별로 생활 만족감을 결정짓는 기제가 동일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건강이나 한국어 숙련도, 남편과의 관계, 가정 경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변화는 모든 이주여성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다. 하지만 나이나 교육수준, 결혼년수, 사회활동, 차별경험, 그리고 귀화자 자격 등이 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혹은 민족별로 차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차이들은 주로 적응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Sung, Chin, Lee & Lee, 2013). 예를 들어,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은 중국이나 중국동포 여성들에 비해 적응 스트레스

에 덜 민감하며 필리핀이나 중국 출신 여성들에 비해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Choi, 2009; Yang, Song & Im, 2009). 이에 비해, 중국동포 이주 여성들은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더욱 평등한 대우를 기대함으로써 차별에 대해 한층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낀다. 특히 학력이 높은 중국동포 여성일수록 이주자에 대한 차별, 남녀 차별,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제한된 기회로 인한 어려움과 삶의 질의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Cui, 2007).

한국에 거주하는 선진국 출신의 혼인이주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본여성이주자들에 대한 연구들도 이들 특유의 이주맥락과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정기선의 연구에 따르면 주로 종교혼이나 연애결혼으로 한국에 정착한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은 혼인연령이나 배우자와의 나이차에 있어 한국인끼리의 혼인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하지만 다른 출신국 결혼이주자들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부부관계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정기선, 2008). 또한 이들은 98%가 일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적극적으로 동화되기보다는 강한 일본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에서 겪는 갈등과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다(이시이히로코, 민기연, 선곡유화, 이영선, 2015).

5. 한국의 영주권자와 귀화자

이 연구의 대상인 영주권자와 귀화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영주제도와 귀화제도의 도입과 변화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영주권 제도는 2002년에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하는 법령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영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는 5년 단위의 거주(F-2)비자를 가진 중국출신의 이주자들이 존재하였고 이들 중 약 92%가 당시에 한국과 외교관계가 있던 대만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흔히 '화교'라 불리는 이들은 한국 내에서 겪는 사회적 차별과 어려운 귀화절차의 벽, 취업이나 회사설립의 어려움을 피해 1970년대부터 한국을 떠나 중국본토나 대만, 혹은 제3국가로 역이주하기 시작했고 화교 제 1세대는 물론 제 2세대에서도 한국과 본국에 연결되어 있는 초국가적 삶을 이어나갔다(이창호, 2012). 초기 영주권 제도가 화교들이 비자 심사 없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영주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체류 이외의 권한들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화교이외의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가장 오래된 혼인이주의 역사를 가진 일본출신 이주여성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1970~80년에 통일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혼에 의해 꾸준히 국내로 유입되었고 2004년 한류와 국제화의 영향으로 연애결혼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2014년 현재 한국거주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으로는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김두섭, 유정균, 2015). 2002년 도입 직후에는 대부분이 대만국적을 가진 화교들이었지만 2010년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해외동포들에게 영주자격을 허용하면서 중국출신 해외동포들의 영주권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들이 2012년 기준 총 영주권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이후 영주권제도는 법개정을 통해 영주권자들의 의료보험이나 연금, 교육과 금융 거래에서의 권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한편, 외국인 전문인력이나 투자자들의 장기체류를 돕기 위한 영주자격을 신설하고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어업분야의 장기근속 외국인들에게도 영주자격을 허용하였다. 2010년에 4만 5천여 명이었던 누적 영주자격체류 외국인의 수는 2015년에는 12만 3천여 명까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5).

귀화제도는 1948년 국적법에 의거 제정된 이래 아버지가 한국인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부계혈통주의를 유지해왔었다. 하지만 1997년 국적법 개정에서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후천적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처가 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그리고 귀화한 자로 규정했다. 2004년 개정에서는 결혼이주자들이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이 지속되지 못했을 시 양육해야 할 아동을 위해 이들의 국적취득을 허용하였다. 또한 2010년에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게 되었다. 귀화자의 수도 국적법 제정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2010년 해외동포들의 영주자격취득이 용이해지자 상당수의 해외동포들이 귀화 신청대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서 연간 귀화 신청자는 소폭 감소하고 있다. 2014년 한해 동안 귀화한 11,314명 중 혼인 이주자의 간이귀화가 71.4%를 차지하며 전체 귀화자의 58.8%가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출신들이며 베트남 출신이 26.3%를 차지하고 캄보디아나 필리핀에서 온 이들이 각각 3.5%를 차지한다(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4).

<표 1>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영주자격을 획득한 영주권자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들의 주요 출신국과 성별, 이전의 체류 자격과 영주

권/국적 취득 기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두 그룹 모두 한국계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을 포함한 중국국적 출신은 영주권자의 65%, 귀화자의 76%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2016년 현재 훨씬 더 높아졌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자에 비해 귀화자들의 절대 다수는 중국을 포함한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이주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여성비율이 귀화자에서 훨씬 더 높다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영주권자와 귀화자 그룹간의 차이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영주권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의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두 그룹 모두 대다수가 혼인이주자들에게 주어졌던(지금은 별도의 혼인비자 발급) 거주 비자나 해외 동포들에게 주어졌던 방문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체류외국인의 국적·성별·비자취득경로·자격보유기간

2002/2006-2012	영주권자 (N=75, 143)		귀화자 (N=115, 499)	
본국 국적	한국계 중국인	39,257 (52.2%)	한국계 중국인	52,976 (59.5%)
	대만	13,794 (18.4%)	중국	14,797 (16.6%)
	중국	9,650 (12.8%)	베트남	12,804 (14.4%)
	일본	6,381 (8.5%)	필리핀	3,483 (3.4%)
	베트남	971 (1.3%)	캄보디아	1,069 (1.2%)
	미국	808 (1.1%)	대만	907 (1.0%)
성별	여자	41,839 (55.7%)	여자	68,870 (77.4%)
	남자	33,304 (44.3%)	남자	20,053 (22.5%)
비자경로	거주/결혼이민(F2,6)	35,509 (48.49%)	거주/결혼이민(F2,6)	51,918 (61.8%)
	방문취업(H-2)	20,126 (27.35%)	기타	22,813 (29.0%)
	방문동거(F-1)	11,570 (15.72%)	방문취업(H-2)	7,122 (8.34%)
영주권/국적 소지기간	1년 미만	18,813 (25.0%)	1년 미만	12,459 (14.0%)
	1~2년 미만	20,901 (27.8%)	1~2년 미만	14,228 (16.0%)
	2~3년 미만	15,492 (20.6%)	2~3년 미만	20,622 (23.2%)
	3~10년 미만	17,850 (23.7%)	3~6년 미만	37,550 (42.3%)
	11년 이상	2,087 (2.8%)	6년 이상	4,067 (4.6%)

자료: 2012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정기선 등) 인용하여 재구성

또한 영주권자의 73.4%와 귀화자의 53.2%가 현재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2010년을 전후해 정주이주자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주권자와 귀화자의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비판은 ‘영주자격 전치주의’의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은 현재의 영주·귀화 제도로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이주자들의 정주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영주자격이 귀화제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영주 자격에 따라 그 요건이 간이귀화보다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2년의 체류조건을 채우면 영주권과 귀화 신청 모두가 가능하다. 반면, 혼인과 혈연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 영주권 자격 요건은 소득이나 한국어 능력 시험 모두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정기선, 김석호, 박원호, 윤광일, 2012). 한편, 영주권 전치주의를 반대하는 논리는 결혼이주 여성의 귀화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그들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영주 귀화 제도가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다수의 이주자들의 국적취득자 쏠림현상 뿐 아니라 이들이 한국 사회 저소득층으로 편입 고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이주자들의 생활 만족감의 집단 간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주자의 주관적 인식에 주목했던 이론적 논의들의 연장선에서 분석결과를 논의할 것이다. 혼인이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남성 이주자가 다수인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연구 모두 삶의 질과 적응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남녀별 차이를 논의하기가 어렵다. 또한 선진국과 후진국 출신 이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주맥락과 삶의 질의 차이를 포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별과 출신국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상이한 이주 맥락 속에서 이주자의 삶의 질을 논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와 표본

이 연구는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에 정착한 영주권자와 귀화자들의 적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

로 법무부가 시행하였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제공한 영주권자 및 귀화자 모집단 리스트에서 단단계 지역집락 표집 방법을 사용해 50개의 시·군·구에서 각각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표본 추출하여 이루어졌다. 영주권자 조사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미국, 캐나다, 필리핀, 태국 출신자들을 포함했으며 귀화자 조사는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주자의 규모가 아주 작은 국가들을 제외시켰으나 조사대상에 포함된 국가들의 출신자들 총합이 한국의 영주권자와 귀화자 전체 집단의 95%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 조사는 최초로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포함하는 통합조사이며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적응 환경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실증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총 남자 379명 여자 1,013명의 표본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분석변수에 모두 답한 응답자 1,054명(남자 301명, 여자 7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남녀 간의 이주맥락이 다르고 표본의 크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회귀분석은 남녀 개별적으로 시행하였다.

2. 측정도구

종속변수인 <생활 만족감>은 이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5점 척도로 구성된 “귀하는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답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의 서열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주라는 초국가적 경험에 수반되는 주관적 인식으로 계층 이동감과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을 측정하였다. 이주 전후의 계층이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주관적 계층 이동감: perceived social mobility>의 변수는 한국 가족과 모국 가족이 속한 주관적 계층의식(subjective social status)을 묻는 질문들을 이용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관적 계층 이동감을 본국과 이주국에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정의하였다(Alcantara, 2014, pp.97-100). ‘주관적 계층의식은 이전에 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대신하여 비교적 최근에 발달된 개념이다. 노동계급 혹은 중산층계급 등 개인과 사회마다 정의와 느낌이 다른 계급 개념을 대신해서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보통 10단의 계층 사다리를 가정하고 응답자가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어느 단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느끼는 지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측정하고 있다(Singh-Manoux, Adler & Marmot, 2003, pp.1322-1323). 이러한 측정결과
는 가구소득이나, 교육, 직업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과 강한 연관을 가질 뿐 아니라,
이들과 별개의 독립적인 건강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Adler, Singh-Manoux,
Schwartz, Stewart, Mathews & Marmot, 2008, p.1035). 이 연구에 사용된 조사자료에
서는 계층의식을 가족단위로 측정하여, “한국에서 가장 못 사는 가족을 최하층으로 하
고, 가장 잘 사는 가족을 최상층으로 할 때, 귀하의 가족은 어디에 속합니까?” 라는 질문
과 “모국에서 가장 못사는 가족을 최하층으로 하고, 가장 잘 사는 가족을 최상층으로
할 때, 귀하의 모국 가족은 어디에 속합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였다. 두 질문 모두
11점 척도(0: 최하층, 5: 중간, 10: 최상층)의 동일한 척도를 가졌으며 한국에서의 주관
적 계층 점수에서 모국에서의 주관적 계층 점수를 제하여 얻어진 차이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6단계 이상의 하락을 보여 가장 큰 계층 하향이동감을 경험한 집단에게
0점을 부여하고 5부터 1단계의 하향이동을 경험한 집단에게 1-5점, 그리고 이동감이
없는 집단은 6점, 1-6단계의 상향 이동감을 경험한 집단을 7-12점으로 하여 가장 높은
하향감에서 가장 높은 상향감까지 총 13점 척도의 연속변수를 구성하였다. 단순히
현재 한국에서의 주관적인 계층 의식만을 고려했을 때는 그것과 독립적인 이주 후의
사회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한 이들의 건강위험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과 본국과 한국의
계층 사다리의 질적 차이로 인해 객관적인 계층 이동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러한 측정방법이 계층이동 효과를 측정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주요 변수로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을 측정하였다.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은 정체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되어 왔다. 이 연구는 개별
소속감의 절대 크기에 따른 효과나 Berry의 네 가지 적응유형(통합, 동화, 고립, 주변화)
에 따른 질적인 유형별 효과가 아니라, 두 가지 소속감의 차이를 통해 측정되는 본국에
대한 소속감 대비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이 가지는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러한 측정은 본국 과 이주국의 개별적 소속감의 상태가 아닌 소속감의 위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먼저 “한국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의 정도는?”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4점 척도(1: 전혀 없다, 2: 조금 없다, 3: 조금 있는 편, 4: 매우 있다)를 사용하였
고 본국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도 “본국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의 정도는”이라는 질문에
동일한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편, 본국 소속감은 생활 만족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던 반면, 한국에 대한 소속감은 유의한 수준으로 생활 만족감과 정적 연관

성을 보였다. 본국 소속감에 대비한 한국 소속감의 상대적 크기를 한국 소속감의 값에서 본국 소속감의 값을 제한 값들로 이루어진 연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즉, 본국에 대한 소속감은 “매우 있다”이지만 한국에 대한 소속감은 “전혀 없다”라고 답한 이주자부터 양국에 대한 소속감에 차이가 없는 이주자를 거쳐 본국에 대한 소속감은 “전혀 없다”인 반면 한국에 대한 소속감은 “매우 있다”라고 답한 이주자까지 한국과 본국에 대한 소속감을 모두 반영하여 구성된 연속변수를 사용하되 각 값에 3을 더해 0에서 6까지의 척도로 변환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전체 응답자들 중 51%가 모국과 한국에 대해 동일한 정도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한국에 더 큰 소속감을 가지는 응답자는 약 30%이며 본국에 상대적으로 더 큰 소속감을 가지는 응답자는 약 20% 정도였다. 상대적 한국 소속감이 낮은 그룹의 98%가 본국에 대한 소속감을 조금 혹은 매우 높게 가지고 있으며 약 47%가 한국에 대한 소속감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다. 한편,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이 높은 집단의 97%가 한국에 대해 조금은 혹은 매우 높은 소속감을 가지며 이 집단의 오직 13.5%가 본국에 대해서도 소속감이 조금 있는 편이고 63%는 본국에 대해 소속감이 전혀 혹은 조금 없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주자의 적응과 생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들로서 교육년수, 월평균 가구소득, 현재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여부, 주택소유여부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교육년수는 정규교육을 받은 년 수로 1-20의 값을 가진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원조사에서 사용한 5가지 소득 범주의 중간 값을 취한 서열변수(1: 50만원, 2: 150만원, 3: 250만원, 4: 350만원, 5: 450만원)를 사용하였다. 경제활동 변수(0: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음, 1: 현재 일하고 있음)와 주택소유여부(0: 소유하지 않음, 1: 소유하고 있음)는 더미변수로 통제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 외에 이주관련 변인으로서 한국어 능력, 한국거주기간, 귀화여부, 그리고 인지된 차별경험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4개 영역에서 각각 5점 척도의(1: 매우 서툰, 2: 서툰,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값을 합산해서 최저 4점에서 최고 20점의 값을 가진다. 또한 이주자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수인 한국거주기간을 체류 년 수(0-65년)로 포함시켰고 한국국적 유무도 분석에 포함시켰다(0: 영주권자, 1: 시민권자). 인지된 차별경험은 이주자의 적응 스트레스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받는 대우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에 포함시켰다(0: 차별경험 없음, 1: 차별경험 있음). 생활 만족감에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인구사회학

적 요소로서 나이(16-81)와 혼인관계(1: 배우자 있음)를 통제하였다.

이 연구는 이주자의 출신국 배경이 이주맥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적별 특성은 화교라 불리는 대만국적 이주자들의 경우와 같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거나 통일교를 통해 한국에 오게 된 일본이주자들의 종교적 배경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출신국가의 경제력이 이주동기와 경로뿐 아니라 이주자가 이주 전과 이주 후의 삶을 비교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가장 단순한 분류로, 이주자의 출신국의 경제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후진국'(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과 동급 혹은 이상인 선진국(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중국국적으로 구분되는 중국동포는 민족적 동질성에 의한 특수한 이주 맥락을 가지므로 후진국에서 분류, 최종적으로 후진국, 선진국, 중국동포의 세 집단의 구분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표 2>는 주요변수의 평균값 혹은 구성비를 남녀별로 보여주고 있다. 생활 만족감의 평균은 여자 3.13, 남자 3.22로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t=1.403, p<.08$). 하지만 별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할 경우,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이라 답한 승산비는 여성이 남성보다 1.64배 높다(OR: 1.64, $p<.000$). 표본 응답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는 평균 나이가 여자 40세, 남자 47세이며 대다수가 기혼자이다. 남녀 모두 12년 정도의 정규 교육년수를 가지며 여자의 64%, 남자의 88%가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고용 형태로는 여자의 53%, 남자의 45%가 일년 미만의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여자에 비해 남자가 높은 경제 활동률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이지만 주택 소유율은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여성: 35.3%, 남성: 19.2%). 이는 남성들의 대다수가(77%) 영주권자이고 여성들의 경우 약 반수가 귀화자인 영향과 더불어 한국인 남편의 주택소유가 더욱 용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여진다. 또한 인지된 차별 경험

의 비율이 남성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t=3.77$, $p<.000$).

전체 표본에서 43.45%가 계층 하향이동감을 경험한 반면 오직 15.39%만이 계층 상향이동감을 경험했고, 41.18%는 동일한 계층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계층 이동감의 평균은 여성에게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 한국소속감의 평균은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한국어 능력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남성의 거주기간이 더 길게 나타나며($t =8.17$, $p <.000$), 귀화자 비율은 여성에게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표 2. 연구표본의 기초통계

(N=1,054)

변수		여자(N=753)	남자(N=301)
		M(SE) or %	M(SE) or %
생활만족감	1: 매우 불만족 2: 다소 불만족 3: 보통 4: 약간 만족 5: 매우 만족	3.13(1.01)	3.22(.86)
계층이동감	0: 강한 하향감 6: 이동없음 12: 강한 상향감	5.28(1.93)	5.12(1.79)
상대적 한국소속감	0: 약한 상대적소속감 3: 중간(동일한) 상대적소속감 6: 강한 상대적소속감	3.12(.98)	3.20(1.04)
나이 (년)	16-81	39.07(10.97)	43.92(12.57)
혼인관계	0: 미혼/이혼/사별 1: 배우자 있음	87.38%	72.43%
자녀유무	0: 자녀없음 1: 자녀 있음	88.98%	91.09%
교육년수	0-24	11.51(3.24)	12.35(3.45)
경제활동	0: 현재 경제활동 없음 1: 현재 경제활동 중임	53.87%	84.72%
가구월소득	1: 50만원 2: 150만원 3: 250만원 4: 350만원 5: 450만원	216.26(112.8)	256.64(130.7)
주택소유	0: 전세/월세/무상 1: 주택소유	35.33%	19.27%
한국거주기간(년)	0-65	8.82(7.66)	14.92(16.52)
한국어	4-20 말하기/듣기/읽기/쓰기 (1: 매우 서툰 2: 서툰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15.08(3.93)	15.33(4.19)
시민권	0: 영주권자 1: 귀화자	49.40%	22.92%
차별경험	0: 없음 1: 있음	69.34%	80.73%

<표 3>은 남녀를 합한 전체 표본에서 나타나는 주요 연속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생활 만족감은 가구 월소득과 계층이동감 등 경제적 조건과 연관된 변수들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 반면, 나이나 교육년수 등의 인구사회학적 조건들이나 거주기간이나 한국어 능력과 같은 이주관련 변수들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계층 이동감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월평균 가구소득, 그리고 생활 만족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한편, 나이가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본국에 비해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은 높아진다. 이는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오랜 정착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교육수준의 상관관계는 다소 복잡하다. 이주자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고 한국 거주기간이 길며 한국어 실력이 높지만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은 낮아진다. 계층 이동감과 상대적 소속감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들은 계층 이동감과 한국사회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이 서로 다른 요인들에 바탕해서 형성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표 3. 주요변수 간 상관계수

	만족감	이동감	소속감	나이	교육	월소득	거주기간	한국어
생활 만족감	1.00							
사회계층 이동감	0.30***	1.00						
한국 상대적소속감	0.05	0.03	1.00					
나이	-0.01	-0.04	0.14***	1.00				
교육	0.07	-0.06	-0.10***	-0.05	1.00			
가구 월소득	0.28***	0.18***	-0.01	-0.02	0.34***	1.00		
한국 거주기간	0.02	0.09**	0.08**	0.35***	0.24***	0.20***	1.00	
한국어 능력	0.05	-0.06	0.10***	0.07	0.24***	0.10***	0.13***	1.00

* $p < .05$. ** $p < .01$. *** $p < .000$

2. 회귀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정착한 이주자들의 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계층 이동감과 상대적 소속감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 관계가 성별과 출신국 배경 등의 이주 맥락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표 4>는 여성 이주자와 남성 이주자의 생활 만족감을 예측하는 회귀모델들의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모델은 나이 혼인여부 교육년수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월가구소득, 주택소유, 경제활동 등의 경제적 자원변수, 그리고 한국어능력, 체류기간, 시민권과 차별경험 등 이주관련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제한 후에도 계층 이동감과 한국사회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이 이주자의 생활 만족감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모델에서, 남녀 모두 나이와 혼인관계, 교육년수가 생활 만족감에 끼치는 독립적인 영향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현재의 경제활동 여부는 남성 이주자 집단에서만 생활 만족감에 정적 효과를 보이다가 소득변수를 통제했을 때 그 유의성이 사라진다. 하지만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이 제시하듯이 다른 경제적 변수들은 남녀 모두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생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택소유는 생활 만족감의 증가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월 가구소득의 증가 역시 유의한 생활 만족감의 증가를 가져온다. 반면, 이주관련 변수들의 효과는 남녀 간의 차이가 뚜렷한데 우선 한국어 능력은 오직 여성 이주자들의 생활 만족감을 증가시키며 마찬가지로, 차별경험이 생활 만족감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여성 이주자들에게만 유의하게 나타난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 귀화자는 더 높은 법적 권한에도 불구하고 여성 영주권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생활 만족감을 보이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남성 이주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4. 이주자의 생활만족감에 대한 OLS 분석결과

변수	여자 (N=753)		남자 (N=301)	
	b(SE)	b(SE)	b(SE)	b(SE)
나이	.001 (.003)	.000 (.003)	.008 (.004)	.007 (.005)
기혼	-.160 (.103)	-.162 (.103)	-.156 (.124)	-.122 (.126)
교육년수	.011 (.012)	.008 (.012)	.023 (.017)	.021 (.018)
경제활동	.080 (.068)	.099 (.068)	.205 (.141)	.197 (.142)
월평균 가구소득	.002***(.000)	.001***(.000)	.001** (.000)	.001**(.000)
주택소유	.205** (.075)	.227** (.075)	.369** (.136)	.361**(.137)
거주 기간	.002 (.005)	.000 (.005)	-.007 (.005)	-.006 (.005)
한국어 능력	.022* (.009)	.022* (.009)	-.000 (.011)	-.001 (.011)
귀화자	-.374***(.076)	-.384***(.076)	-.160 (.122)	-.172 (.122)
차별 경험	-.189* (.073)	-.182* (.072)	-.183 (.122)	-.184 (.123)
계층 이동감	.133***(.018)	.083** (.027)	.093***(.028)	.189* (.092)
상대적 한국소속감	.097** (.034)	.158** (.056)	-.004 (.046)	.174 (.145)
출신국-선진국 (ref: 후진국)	-.605***(.143)	-.551 (.401)	-.223 (.236)	.432 (.887)
출신국-중국동포	-.143 (.091)	-.390 (.306)	-.050 (.152)	1.25 (.818)
선진국 * 계층이동감(ref: 후진국)		.131* (.051)		-.048 (.107)
중국동포 * 계층이동감		.073 (.038)		-.123 (.098)
선진국 * 상대적한국소속감(ref: 후진국)		-.235* (.102)		-.150 (.166)
중국동포 * 상대적한국소속감		-.047 (.073)		-.219 (.158)
절편	1.979 (.336)	2.154***(.37)	2.02***(.506)	1.02 (.898)
Adjusted R-square	.209	.218	.126	.12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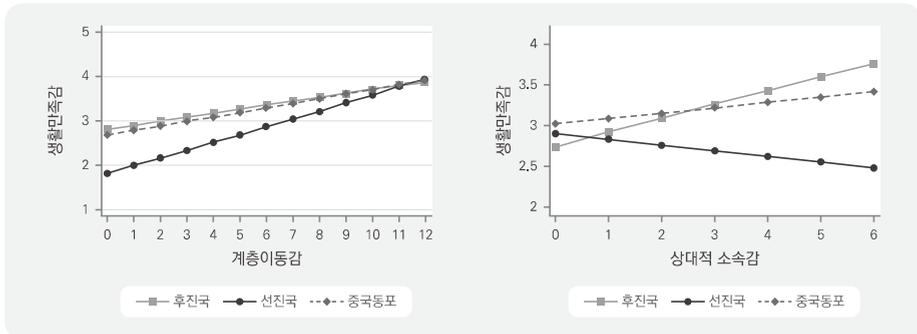
이주 후에 경험한 계층 이동감은 남녀 모두의 생활 만족감에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진다. 즉, 하향에서 상향이동감으로 옮겨갈수록 다른 모든 조건들, 특히 객관적인 경제적 조건들을 통제한 후에도 생활만족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의 영향은 오직 여성 이주자들에게만 나타난다($b = .097, p < .01$). 즉, 자국 소속감 대비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클수록 여성 이주자들은 더 높은 생활 만족감을 가지지만 남성에게서 이러한 효과는 관찰되지 않는다. 출신국의 배경이 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은 후진국과 선진국 이주여성들 사이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선진국 출신 이주여성들은 후진국 출신 이주여성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

은 생활 만족감을 보이지만 중국동포의 경우 후진국 출신 여성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성 이주자에게는 출신국 배경에 따른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

두 번째 회귀모델은 출신국 배경과 주관적 인식의 상호작용 변수들을 포함하여 계층 이동감이나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이 출신국 배경에 따라 생활 만족감에 주는 영향이 다른 지를 검증하였다. 우선, 여성 이주자들의 생활 만족감은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 소유, 한국어능력, 귀화자 지위, 차별경험, 계층 이동감, 상대적 소속감등과 유의한 연관성을 유지한다. 선진국과 계층 이동감의 상호작용항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회귀계수는($b=.131, p<.05$) 선진국 출신 여성들이 준거집단인 후진국 출신 여성들에 비해 계층 이동감으로 인한 생활 만족감의 변화가 더 크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소속감의 영향력 역시 후진국과 선진국 여성들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드러낸다($b=-.235, p<.05$). 즉,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이 높을수록 후진국 여성들의 생활 만족감은 선진국 여성들의 그것과 비교해 더 많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출신국 배경에 따른 조절효과는 남성 이주자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1. 여성이주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생활 만족감 기대 평균값

(여자 N=753)



[그림 1]은 여성 이주자내에서 분석에 포함된 다른 모든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 계층 이동감 혹은 상대적 소속감의 변화에 따라 생활 만족감의 기대 평균값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출신국의 배경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향 이동을 경험한 집단에서(계층이동감: 0-5) 후진국이나 중국동포출신 여성이주자에 비해 선진국출신 여성이주자들의 생활 만족감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대 평균값의

차이는 상향이동감이 큰 집단으로 이동할수록 좁혀진다.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이 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은 후진국 출신 여성들에게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상대적 소속감이 클수록 이들의 생활 만족감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선진국이나 중국동포 출신의 여성 이주자들에게는 이러한 소속감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후진국 여성과 비교해서, 선진국 출신 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이 커질수록 생활 만족감이 크게 저하되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b=-.235, p<.05$).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이 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의 폭이 매우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성 이주자들은 월 가구소득과 주택소유 그리고 계층 이동감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은 여전히 생활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계층이동감과 상대적 소속감이 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V. 결론

생활 만족감의 측정이 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점검하는데 활용되었던 것처럼, 이주자들의 생활 만족감 형성 기제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이주환경과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한국 이주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관심밖에 있던 이주자들의 주관적 인식이 사회경제적 조건들과 독립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실증적 논의들의 연장선에 있다. 또한 이주자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이후의 생활 환경에 의거해 동일한 척도로 측정되는 소득이나 체류자격 등의 객관적인 지표들만으로 통합이나 삶의 질을 논하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구체적으로, 이주 이후에 필연적으로 형성된 계층 이동감과 본국과 대비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의 크기가 현재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생활 만족감과 유의한 연관성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연관관계가 한국으로의 이주 맥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성별과 출신국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을 전제하였다.

본 논문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확인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를 전후로 한 계층 이동감은 남녀 모두에서 생활 만족감과 유의한 연관성을 가진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구소득과 주택소유 등의 객관적 경제력 지표, 그리고 이주관련 변수들과 출신국 배경 등 모든 조건을 통제한 후에도 이주자가 하향에서 상향으로 계층의 이동을 경험할 수록 생활 만족감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절대적 경제력뿐 아니라 경제력의 상대적 수준의 향상이 삶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적 연관성에서 후진국 혹은 중국동포 출신 여성이주자들과 선진국 출신 여성이주자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계층의 하향 이동감에서 상향 이동감으로 옮겨갈수록 후진국, 선진국, 중국동포 집단의 생활 만족감의 크기가 높아지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되기는 하지만 하향 이동감의 경험은 특히 선진국 출신 이주여성들의 생활 만족감을 다른 집단과 매우 큰 차이로 저하시키고 있다. 즉, 출신국적의 효과는 주로 본인의 계층이 한국에 이주한 후 하락했다고 생각하는 선진국 출신 이주여성들의 생활 만족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이주자의 계층이동(status change)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후진국 출신의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계층의 하향이동 혹은 직업적 강등 상황의 경험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들을 완하시키는 심리적 기제로서 본국과 비교한 절대적인 소득의 증가나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하향 계층이동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 만족감을 유지하는 후진국 출신 혹은 중국동포 여성 이주자들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완효과는 선진국 출신 여성들에게서는 그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이주 전의 생활 환경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다. 선진국 출신 혼인이주여성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일본출신의 결혼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이들이 다른 이주여성들에 비해 가정의 경제적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본국과 대비한 한국사회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의 크기가 여성 이주자들의 생활 만족감에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효과의 유의성은 남성이주자 집단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이 높을수록 후진국 여성들의 생활 만족감의 평균 기대치는 높아지지만 선진국 출신 이주여성들의 생활 만족감의 평균 기대치는 오히려 낮아진다. [그림 1]의 소속감의 평균 기대치를 살펴보면 후진국 출신 여성 이주자들내에서 상대적 한국 소속감에 따른 생활 만족감 평균 기대치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 한국 소속감이 이 집단의 생활 만족감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타 집단에 비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내국인과의 접촉과 긴밀한 유대가 이주국에 대한

소속감에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맥락에서(Vroome, Verkuyten & Martinovic, 2014, pp.3-4),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연결망이 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국적별로 살펴본 연구는 소속감과 생활 만족감의 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김경미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과 맺고 있는 강한 정서적 연결망을 “교량적 강한 연계의 힘”이라 개념화하였다. 또한 정서적 연결망을 한국인과만 맺고 있을 때, 한국인 및 모국인 모두와 연계를 맺거나 모국인과만 맺는 경우 혹은 연계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생활 만족감과 연결되며 이러한 효과는 일본과 중국출신 여성들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김경미, 2013, p.192). 한국인 중심의 강한 정서적 연계의 정적 효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의 효과가 선진국 출신 이주여성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자들 중 선진국 출신 여성의 출신국적 분포는 일본이 66%, 대만이 25%,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가 9%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이 집단은 다른 후진국 출신이나 중국동포 출신 집단에 비해 높은 교육과 소득 수준을 가진 반면 한국에 대한 절대적 소속감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다. 일본과 대만국적의 여성들은 각각 64%와 80%의 비율로 본국에 대해 조금 혹은 높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소속감의 위계를 본다면, 본국보다 한국에 더 큰 소속감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은 일본이 32%, 대만 국적자가 23%이다. 이들 집단 내에서 본국 중심의 소속감이 더 높은 생활 만족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강한 민족적 정체성이 의미 있는 적응자원(coping resource)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상대적 한국 소속감의 효과가 가장 완만하게 나타나는 한국계 중국출신 이주여성의 경우 본국(중국)과 한국에 속하지 않은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본국이나 한국에 대한 소속감의 중요성은 다소 떨어진다 고 볼 수 있다.

주관적 계층 이동감이나 상대적 한국 소속감 외에 분석을 통한 의미 있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생활 만족감의 설명모델에서 여성 이주자들에게만 유의하게 나타나는 이주 관련 변인들은 한국어 능력, 차별경험, 그리고 영주권과 귀화자의 차이이다. 흥미로운 것은, 별도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한국어 능력의 긍정적 효과는 오직 중국동포들에게만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특히 저임금 서비스 업종이 주를 이루기는 하나 광범위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인과의 긴밀한 접촉이 빈번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높이는 특수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 이주자 집단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다른 조건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영주권자에 비해 귀화자의 생활 만족감의 평균값이 떨어진다. 귀화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감을 이해하기 위해 여성 이주자들이 영주권을 얻거나 귀화를 선택하는 상이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주권을 선택하는 여성 이주자들은 그들의 영주권 획득 이전의 체류비자로 추정해볼 때 결혼 이민자이거나 재외동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2010년 해외동포들의 영주권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결혼관련 비자나 취업방문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동포들의 영주권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동포 출신의 여성 이주자들은 특정한 국적과 구분되는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로서의 힘든 삶을 견뎌내는 심리적 기제로서 자녀의 미래를 포함하는 미래의 중국에서의 삶을 준거로 한국에서의 힘든 노동의 대가를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취업과 생활에 용이한 한국의 영주권자 자격으로 한국에서의 정주를 선호한다(우명숙, 이나영, 2013). 또한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다수도 귀화보다는 영주권을 선택하는 데 영주권 자격만으로도 이주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일본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유리하며 자녀의 이중국적을 유지하거나 배우자 사망 시 일본으로 귀국하여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이시이히로코, 민기연, 선곡유화, 이영선, 2015). 특히, 고학력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국적의 미취득이 생활에 큰 불편이 없고 본국 가족의 한국국적 취득 반대와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적 정체성이 국적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다(박미숙, 김영순, 이진영, 2015). 결론적으로 한국 이주에서 영주권은 정체성이나 초국가적 이주맥락에서 본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이주자들에게 도구적 성격을 가진다. 반면, 본국의 실업문제나 저임금 구조로 임금 노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후진국 여성들은 본국 가족의 부양과 지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결혼 이주를 통해 한국에 정착한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획득 유지하기 위해 남편에게 종속적이며 양육과 시부모 부양의 부담 그리고 언어문제, 인종차별의 벽으로 이주의 강한 경제적 동기가 충족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주 환경의 차이를 통해 귀화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 만족감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주관적 인식이 가지는 설명력이나 출신국적별 혹은 성별에 따른 특이성을 강조함으로써 증가하는 이주자간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다. 첫째,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이나 남성노동이주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배제되어 왔던 남성 정주이주자가 가지는 차별적인 이주환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들의 생활 만족감에 계층 이동감, 가구소득, 주택소유 등의 경제적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여성 이주자들의 생활 만족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이주동기, 이주 후 초국가적(transnational) 생활방식, 정체성과 소속감, 그리고 정주 의사(settlement plans) 등 여성 이주자들과 구분되는 남성 이주자들의 이주맥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기존 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주연구에서는 남성의 이주는 경제적 이주로 여성의 이주는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연합을 중심으로 바라봄에 따라 남성이주자의 삶은 경제 행위를 중심으로 한 도구적 관점에서 여성이주자의 삶은 가족을 근거로 한 관계 지향적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곤 했다(Poutvaara, Munk, & Junge, 2009, p.8). 이러한 구분이 한국적 상황에서 얼마나 유효한 지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비록 횡단분석이지만 생활 만족감을 설명하는 예측변수로서 주관적 인식들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높은 생활 만족감이 계층 이동감이나 한국에 대한 상대적 소속감을 높이는 효과도 매우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주관적 인식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차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교적 최근에 유입된 영주권자나 귀화자들은 한국과 본국을 오가며 살고 싶은 강한 초국가적 성향을 지닌다. 한국에 대한 국가적 정체성(host national identification)이 이주자들의 성별, 국적별, 그리고 초국가적 생활 양상에 따라 어떻게 발전되는 가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이나 귀화관련 제도변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에 따라 영주권자와 귀화자 수의 급격한 양적인 증가와 함께 두 집단 간의 이질성 혹은 집단 내의 동질성에도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파악하면서 영주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과 그에 따른 혜택을 균형적으로 조정해가는 일은 정주자들의 한국에서의 삶의 질뿐 아니라 성공적인 이주민 정책을 개선해 가는 데 꼭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미.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2), pp.185-208.
- 김두섭, 유정균. (2015). 그림과 표로 보는 외국인 통계 2015. 한양대 SSK 다문화사업단.
- 김진희, 박옥임. (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pp.127-160.
- 김한성, 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지역사회 특성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pp.177-209.
- 김두섭, 이지원. (2015). 거주지역의 민족구성 특성이 혼인이주여성의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7(2), pp.130-156.
- 박미숙, 김영순, 이진영. (2015). 결혼이주여성, 한국국적, 영주권, 국적 불취득, 다문화와 평화, 9(2), pp.138-159.
- 이시이히로코, 민기연, 선곡유화, 이영선. (2015). 한·일 국제결혼한 장기거주 재한 일본 여성의 문화정체성 탐색. *다문화사회연구*, 8(2), pp.107-143.
- 이창호 (2012). 한국화교의 '귀환이주와 새로운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45(3), pp.153-198.
- 우명숙, 이나영. (2013). '조선족' 기혼여성의 초국적 이주와 생애과정 변동: 시간성과 공간성의교차 지점에서. *한국사회학*, 47(5), pp.139-169.
- 정기선. (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0, pp.70-103.
- 정기선, 김석호, 박원호, 윤광일. (2012). 2012년 영주권자귀화자 실태조사.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법무부.
- Adler, N., Singh-Manoux, A., Schwartz, J., Stewart J., Mathews, K., & Marmot, M. G. (2008). Social status and health: a comparison of British civil servants in Whitehall-II with European- and African-Americans in CARDIA.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6, pp.1034-1045.
- Alcantara, C., & Alegria, Margarita. (2014). Do post-migration perceptions of social

- mobility matter for Latino immigrant health? *Social Science Medicine*, 101, pp.94-106.
- Amit, K. (2010).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s from Western countries and from the FSU in Isra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 pp.515-534.
- Angelini, V., Casi, L., & Corazzini, L. (2015). Life satisfaction of immigrants: does cultural assimilation matter? *Journal of Population Economy*, 28, pp.817-844.
- Aranda, M. P., Castaneda, I., Lee, P. J. & Sobel, E. (2001).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gender differences among Mexican Americans. *Social Work Research*, 25, pp.37-48.
- Bartram, D. (2011). Economic migration and happiness: comparing immigrants' and natives' happiness gains from income. *Social Indicator Research*, 103, pp.57-76.
- Bartram, D. (2015). Inverting the logic of economic migration: happiness among migrants moving from wealthier to poorer countries in Europ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6, pp.1211-1230.
- Berry, J. W. (2006) Stress perspectives on acculturation. In Sam, D. L. & Berry, J. W.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pp.43-5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i, H. J. (2009).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pertaining to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among immigrated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1), pp.163-194.
- Clark, A. E., Frijters, P., & Shields, M. A.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 pp.95-144.
- Cui, J. (2007). A qualitative study on adjustment and the pattern of Korean-Chinese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The Women's Studies*, 72(1), pp.143-188.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pp.542-575.
- Diener, E., Kahneman, D., Tov, W., & Arora, R. (2010). Income's association with judgements of life feelings, In Diener, E., Helliwell, J., & Kahneman, D.(eds).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ell-Being*. (pp.3-1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reby, J. (2010). *Divided by borders: Mexican Migrants and Their Childre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ckstein, Z., & Weiss, Y. (2002).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former Soviet Union in the Israeli labor market. In Ben-Bassat, A. (eds). *The Israeli Economy, 1985-1998: From Government Intervention to Market Economics*. Cambridge: MIT Press.
- Frey, B. & Stutzer, A. (2002). What can economist learn from happiness economic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 pp.402-435.
- Gokdemir, O. & Dumludag, D. (2011). Life satisfaction among Turkish and Moroccan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the role of absolute and relative incom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6(3), pp.407-417.
- Kahneman, D., & Krueger, A. B. (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 pp.3-24.
- Kessler R. C. & McLeod, J. D. (1984). Sex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to undesirable life ev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pp.620-631.
- Kim, Y., & Grant, D. (1997). Immigration pattern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among Korean immigrant women and Korean American women. *Cultural Diversity and Mental Health*, 3, pp.235-245.
- Kofman, E. (2005). Citizenship, migration and the reassertion of national identity. *Citizenship Studies*, 9(5), pp.453-467.
- Kuo, W. H. (1984). Prevalence of depression among Asian-American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2, pp.449-457.
- LaFromboise, T. D., Coleman, H., & Gerton, J.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 pp.395-412.
- Liebkind, K. (1996). Acculturation and stress: Vietnamese refugees in Finlan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2), pp.161-180.
- Liebler, C. A., & Sandefur, G. D. (2002). Gender differences in the exchange of

- social support with friends, neighbors, and co-workers at midlife. *Social Science Research*, 31, pp.364-391.
- Lester, L. H. (2005). Immigrants satisfaction: what is it? does it matter? *NILS working paper*, 154, pp.2-103.
- Massey, Douglas S., & Ilana Redstone Akresh. (2006). Immigrant Intentions and Mobility in a Global Economy: The Attitude and Behavior of Recently Arrived U.S. Immigrants. *Social Science Quarterly*, 87, pp.954-971.
- Michalos, A. C. (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pp.347-413.
- Molina, K. M., Alegria M., & Mahalingam R. (2013). A Multiple-group path analysis of the role of everyday discrimination on self-rated physical health among Latinos in the USA.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45, pp.33-44.
- Myers, D. G. (1992). *The Pursuit of Happiness: Who is Happy and Why?* William Morrow, New York, USA.
- Nicklett, E. J, & Burgard, S. A. (2009). Downward social mobility and major depressive episodes among Latino and Asian-Americ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70, pp.793-801.
- Obucina, O. (2013). The patterns of satisfaction among immigrants in Germany. *Social Indicator Research*, 113, pp.1105-1127.
- Ostrove J. M., Adler, N. E., Kuppermann, M, & Washington, A. E. (2000). Objective and subjective assessment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heir relationship to self-rated health in an ethnically diverse sample of pregnant women. *Health Psychology*, 19, pp.613-618.
- Pessar, P. R. (1995). On the homefront and in the workplace: integrating immigrant women into feminist discourse. *Anthropological Quarterly*, 6, pp.37-47.
- Phinney, J. S., & Onwughalu, M. (1996). Racial identity and perception of American ideals among African American and African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2), pp.127-140.
- Phinney, J. S., Horenczyk, G., Liebkind, K., & Vedder, P. (2001). Ethnic identity,

- immigration, and well-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57, pp.493-510.
- Rafael, E. B. (1994). *Language, Identity, and Social division: The Case of Israel*, Oxford University Press.
- Rortes, A. (1999). Conclusion: Towards a new world- the origins and effects of transnational activit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 pp.463-477.
- Poutvaara, P., Munk, M. D., Junge, M. (2009). Self-selection and earnings of emigrants from a welfare state. *IZA Discussion Papers, No.4144*.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 Rajjman, R., & Semyonov, M. (1998). Best of times, worst of times of occupational mobility: the case of Russian immigrants in Israel. *International Migration (Geneva, Switzerland)*, 36, pp.291-312.
- Remennick, L. (2005). Immigration, gender, and psychosocial adjustment: a study of 150 immigrant couples in Israel. *Sex Roles*, 53, pp.847-863.
- Ristner, M., Ponizovsky, A., Nechamkin, Y., & Modai, I. (2001). Gender differences in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immigrants. *Comprehensive Psychiatry*, 42, pp.151-160.
- Rogers, R. (2001). Black like who? Afro-Caribbean immigrants, African Americans, and the politics of group identity. In Foner, N. (eds). *Islands in the City*. Berkeley, CA.
- Roysircar, G., & Maestas, L. M. (2002). Assessing acculturation and aultural variables. In Kurasaki, K. S., Okazaki, S. and Sue, S. (eds.), *Asian American Mental Health: Assessment Theories and Methods*. (pp.77-94). Mioscow: Kluwer Academic/Plnum.
- Rudmin, F. (2009). Constructs, measurements and models of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3. pp.106-123.
- Sachs, J. (2013). Restoring virtue ethics in the quest for happiness. In Helliwell, J, Layard, R. and Sachs J. (eds) *World Happiness Report 2013*. New York: United Nations.

- Safi, M. (2010).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in Europe: between assimilation and discrimin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 pp.159-176.
- Salant, T., & Lauderdale, D. S. (2003). Measuring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acculturation and health in Asian immigrant populations. *Social Science & Medicine*, 57, pp.71-90.
- Semyonov, M., & Lerenthal, T. (1991). Country of origin, gender and the attainment of socioeconomic status: a study of stratification in the Jewish population of Israel.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10, pp.325-345.
- Simon, R. J. (eds). (2001). *Immigrant Wome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Singh-Manoux, A., Adler, N. E. & Marmot, M. G. (2003). Subjective social status: its determinants and its association with measures of ill-health in the Whitehall II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56, pp.1321-1333.
- Sodowsky, G. R. M. & Lai, E. M. (1997). Asian immigrant variables and structural models of cross-cultural distress. In Booth A., Crouter C., & Landale, N. (eds), *Immigration and Family: Research and Policy on U.S. Immigrants* (pp.211-234). Mahwah, NJ: Erlbaum.
- Stevenson, B., & Wolfers, J. (2008).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Working Paper 1428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Stevenson, B., & Wolfers, J. (2013). Subjective well-being and income: is there any evidence of sati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3, pp.598-604.
- Sung, M., Chin, M., Lee, J., & Lee, S. (2013). Ethnic variations in factors contributing to the life satisfaction of migrant wives in South Korea. *Family Relations*, 62(1), pp.226-240.
- Veenhoven, R. (1996a). The study of life satisfaction. In Veenhove R., Scherpenzeel, A.C. and Bunting, B. (eds.), *A comparative study of satisfaction with life in Europe*. (pp.11-48). Eötvös University Press.
- Veenhoven, R. (1996b). Developments in satisfaction-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37, pp.1-46.

- Vohra, N., & John G. A. (2000). Life satisfaction of Indian immigrants in Canada. *Psychology & Developing Societies*, 12, pp.109-138.
- Vroome, T., Verkuyten, M., & Martinovic, B. (2014). Host national identification of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8(1), p.1-27.
- Waters, M. C. (1994). Ethnic and racial identification of second-generation black immigrants in New York C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4), pp.795-820.
- Yang, O. K., Song, M., & Im, S. W. (2009). A study on acculturation stress of internationally married female migrants in Seoul.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1), pp.137-168.

권오정은 럿거스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SSK 다문화사업단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제도변화, 조직, 이주이며, 현재 노동이주, 차별, 직업과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ziankwon@gmail.com)

김석호는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치사회학, 시민사회이며, 현재 이주와 사회통합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eokhokim@snu.ac.kr)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in Korea: Do Perceived Social Mobility and Sense of Belonging Matter?

Kwon, Oh-Jung
(Hanyang University)

Kim, Seok-H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subjective perception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permanent immigrants in Korea. We used the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of Naturalized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2013)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perceived social mobility and sense of relative belonging to Korea on life satisfaction. Our analysis suggests that perceived upward social mobility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reasing life satisfaction in both men and women, even after controlling for potential confounding factors such a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coping resources. On the other hand, the strength of association between sense of relative belonging to Korea and life satisfaction varies with gender: its effect is significant for women but vanishes for men. Women who came from developed countries tend to be more negatively affected by perceived downward mobility, while those from developing countries are more positively influenced by their sense of belonging to Korea.

Keywords: Life Satisfaction, Perceived Social Mobility, Sense of Belonging,
National-ethnic Backgrounds